

우주

플래닛랩스, 위성 소버린 수요에 분기 최대 실적

우주 정의훈_02)368-6170_uihoon0607@eugenefn.com

플래닛랩스, 소버린 수요에 분기 최대 실적

지난 9월 4일, 미국 지구관측 위성 기업 플래닛랩스(Planet Labs)가 회계연도 기준 2분기(5~7월) 실적을 발표했다. 분기 매출은 1억 1,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순손실은 94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2,260만 달러에서 큰 폭으로 줄며 흑자 전환에 다가섰다. 부문별로는 방산·정보 매출이 90% 이상 급증하며 성장을 주도했고 상업 부문이 15% 이상, 민간 정부 부문이 5% 이상 성장했다. 지역별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받고 있는 유럽·중동·아프리카(EMEA)가 130% 이상 성장해 가장 가팔랐으며 북미 25%, 아시아태평양 15% 순이었다.

실적을 끌어올린 것은 각국 정부의 소버린 위성 수요다. 플래닛은 지난 1월 계약을 체결한 스웨덴군의 첫 소버린 지구관측 위성을 불과 수개월 만에 인도했는데, 데이터 구독 판매를 넘어 위성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각국 정부가 공유 데이터가 아닌 우주에 대한 주권적 접근과 독자적인 위협 인식 능력을 우선시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특히 동사는 늘어나는 유럽 수요에 대응해 베를린 공장을 9월 클린룸 구축을 거쳐 연내 위성 생산에 들어가며, 독일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Isar Aerospace)와 발사 계약도 체결해 유럽 현지 생산·발사 체계를 갖추게 됐다.

위성 제조 뿐만 아니라 자체 위성 배치도 진행되고 있다. 초분광 관측위성 탠저(Tanager) 2 호기와 광학 위성 슈퍼도브(SuperDove) 18기가 출하를 마치고 올가을 스페이스 X 트랜스포터-18 라이드셰어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원 추적 등 새로운 관측 수요를 겨냥한 초분광 라인업과 매일 전 지구를 촬영하며 축적해 온 관측 아카이브가 결합되면서, 방산·정보 고객뿐 아니라 상업·민간 수요 기반도 함께 넓어지는 모습이다.

플래닛의 호실적은 글로벌 감시정찰위성 시장의 구조 변화와 맞닿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업 관측위성의 군사적 가치가 입증되면서, 각국 정부의 수요가 위성 데이터 구독에서 자국이 직접 통제하는 소버린 군집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핀란드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 제조 기업인 ICEYE는 UAE 스페이스 42, 독일 라인메탈 등 현지 기업과의 합작 모델로 각국의 소버린 SAR

한주 간 주요 뉴스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Isar Aerospace), 유럽 본토 첫 상업 발사 성공

베스자(Beszar), 팰컨 9 부스터에서 반도체 생산 실험

아마존 레오, 아리안스페이스에 아리안 64 발사 6회 추가 발주

유럽 익스플로레이션 컴퍼니, 4억 5,000만 달러 투자 유치

스토크 스페이스(Stoke Space), 10억 달러 조달과 함께 대형 발사체 공개

SES, 페루 해군 위성통신 사업 수주

일본 액셀스페이스(Axelspace), 에어버스와 영상 판매 제휴

유텔샷(Eutelsat), 그린란드 통신 사업 추가 수주

군집 구축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기업가치 24 억 달러 평가와 함께 연내 상장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주야간·전천후 관측이 가능한 SAR 는 현재 지구관측 분야에서 가장 높은 가치의 방산 계약이 몰리는 부문이다.

경쟁 구도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시장은 플래닛, ICEYE, 블랙스카이(BlackSky), 반토르, 에어버스 등이 센서 성능과 재방문 주기, 정부 계약 접근성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로, 정부·군 조달이 상업 지구관측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적 기반이 되고 있다. 최근에도 블랙스카이의 다년 국제 계약 수주, 미 정찰위성국(NRO)의 호크아이 360 전파 정보 활용 확대, 미 우주군의 공중이동표적추적(SB-AMTI) 위성 발주 등 정부발 수요가 이어졌다.

감시정찰위성 산업은 데이터 판매업에서 위성과 지상 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는 사업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플래닛의 40 억 달러 파이프라인과 ICEYE 의 합작 모델이 보여주듯, 소버린 수요는 위성 제조와 지상국, 분석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패키지 계약으로 이어져 계약 단가와 매출 안정성을 함께 끌어올린다. 방산·정보 수요가 실적 개선의 변곡점을 만들면서 주요 사업자들의 흑자 전환과 상장이 가시권에 들어온 국면으로, 소버린 관측 역량 확보 경쟁이 각국으로 확산되는 만큼 관측위성 밸류체인 전반의 성장 사이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탠저(Tanager) 위성



자료: Planet Labs, 유진투자증권

슈퍼도브(SuperDove)



자료: Planet Labs, 유진투자증권

플래닛랩스 분기별 실적 추이

(백만달러)	3Q25	4Q25	1Q26	2Q26	3Q26	4Q26	1Q27	2Q27	2025	2026
매출액	61	62	66	73	81	87	94	116	244	308
(%yoy)	10.6	4.6	9.6	20.1	32.6	41.1	42.1	58.1	10.7	25.9
Civil Government	19	18	16	16	19	20	16	17	72	72
Commercial	14	15	13	15	13	14	17	18	56	56
Defense & Intelligence	29	28	37	42	49	52	61	81	116	180
매출총이익	38	38	37	42	47	47	50	66	140	172
(%yoy)	44.1	17.7	15.5	30.8	24.2	23.1	37.7	55.3	23.7	23.4
GPM(%)	61.2	62.1	55.2	57.6	57.3	54.2	53.5	56.6	57.2	56.1
영업이익	-23	-19	-23	-18	-18	-36	-35	-14	-116	-95
(%yo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OPM(%)	-36.9	-31.5	-34.4	-24.5	-22.6	-41.5	-37.1	-11.6	-47.5	-30.9
순이익	-20	-35	-13	-23	-59	-152	-139	-9	-123	-247
(%yo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주: 1월 결산 기업 (FY 기준 2Q27 = CY 기준 26.5.1~26.7.30)

자료: Planet Lab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